

요양병원·시설 26일부터 AZ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정부, 예방접종 계획 발표... “2~3월 약 76만명 접종” 코백스 화이자 물량은 최일선 의료진 5만5000명 대상

정부가 이달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은 15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3월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약 76만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 허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 사의 백신은 이달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첫 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가운데 나올 전망이다.

▶요양병원·시설, 만 65세 미만 대상 접종 시작... 4~5월에 2차 접종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한 백신 물량 75만명분(150만 도스)을 이달 24~28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물량이다.

백신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선 요양·정신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과 같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들 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약 64만9000명 가운데 65세 미만인 27만 2000여명이 대상이다.

추진단은 “시군구별로 관내 접종 대상 기관별 일정을 조율하고 25일 까지 공급할 예정”이라며 “1차 접종은 2~3월, 2차 접종은 4~5월 이내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 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에 대해서도 접종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많이 찾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한의사 등 총 35만400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된다.

119 구급대, 역학조사 요원, 검역 요원, 검체 검사 및 이송 요원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1차 대응에 나서는 관계자 7만8000여 명도 3월 중 접종을 진행한다.

▶화이자 백신 2~3월 도입 예정... ‘방역 최일선’ 5만5000명에 집중

이와 함께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화이자 백신 5만8500만명분(11만7000 도스)을 이르면 이달 말, 또는 3월초에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2-3월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총 208곳에서 일하는 의료진 약 5만500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투여한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 내외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중부권(순천향대 천안병원)·호남권(조선대병원)·영남권(양산부산대병원) 등 권역예방접종센터 등을 통해 백신을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코백스를 통해 받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시점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향년 89세 진보운동 ‘큰 어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5일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89세. >>사진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 소장은 이날 오전 입원 중 영면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투병생활을 해왔다.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리면 동부리에서 태어난 그는 1950년대부터 농민·빈민·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하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했다.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분단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겪으며 독학으로 통일 문제와 사회 모순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갔다.

다만, 코백스를 통해 받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시점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선생 영면

향년 89세 진보운동 ‘큰 어른’



1974년에는 유신 반대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됐고,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백 소장은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이기도 하다. ‘항일민족론’(1971), ‘자주교를 입에 넣고 옥색치마 휘날리며’(1979), ‘백기완의 통일 이야기’(2003),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2009) 등 평론·수필집을 비롯한 다수의 저작이 남겨졌다.

투옥과 고문은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선별’ 4차 지원금... 금액·대상 확대되나

민주당, 선별 지급으로 가닥 추경 편성 당장 논의 본격화

민주당, 선별 지급으로 가닥 추경 편성 당장 논의 본격화

민주당, 선별 지급으로 가닥 추경 편성 당장 논의 본격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급 대상과 지원액, 이를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당장 논의가 급류를 타게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늘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 3000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3차 대유행’ 석달째... 살얼음판 국면

전체 확진자 ↓ 수도권은 ↑ 설 연휴·거리두기 하향 촉각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205명) 신규 확진자가 200명 선을 넘으면서 시작된 3차 대유행은 12월 25일(1240명) 정점을 찍은 후 새해 들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 현재 300~400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위험 요인이 많아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번 설 연휴 나흘간도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연휴 검사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어서 확산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휴 직전과 비교하면 검사 건수가 대폭 줄었음에도 확진자 감소 폭이 크지 않았고, 특히 하루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뜻하는 양성률은 오히려 1.7%까지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와 및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한 단계씩 낮추고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부터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확진자 수는 줄었으나 수도권은 오히려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의 80%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탓이다.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282명으로, 직전 한 주(1.31~2.6)간의 258명보다 24명 늘었다.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2주 연속 1을 넘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

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설 연휴 기간 일평균 37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라면서 “국내 발생 확진자의 78.8%가 수도권에서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확진자 발생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족모임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엄격히 적용한 설 연휴 방역의 성패가 판가를 나기 때문이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의 영향도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연합뉴스

축
CONGRATULATIONS

승진

소방준감

국내 첫 여성 소방준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민자
(前 제주동부소방서장)

두리네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오용탁
(위미초 30회)

총경

양수진
(위미초 38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쟁공채사업추진단장

오성률
(위미초 40회)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제주시위미향우회
회장 안성흥 외 회원일동